

여성 척수손상인의 적응 과정

송 총 숙¹⁾

서 론

연구의 필요성

우리나라는 급속한 경제 성장과 산업화와 교통량이 증가됨에 따라 일상생활, 산업재해, 교통사고, 추락사고 및 각종 질환 등에 동반되는 척수손상인이 날이 증가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2005년 보건복지부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의 지체손상인의 수는 총 백만 명으로 추정되고 있고, 이는 법정 장애 유형 중 가장 많으며, 이중 1.9%가 척수손상으로 인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들 자료와 우리나라의 교통사고 및 산업재해로 인한 사고율을 기초로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국내 전체 척수손상환자의 수를 약 5만 명으로 추산하였고, 대략 2,000명 정도가 한국에서 매년 새로운 척수손상인으로 발생되고 있을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최근 척수손상 발생 빈도를 보면 2000년 이전에는 4:1이었던 남녀 환자 발생 비율이 최근에는 3:1에 가까워진 것으로 여성 환자들의 발병률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음을 보이고 있는데(Kang, 2007), 이는 여성의 사회적 활동의 증가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Park et al., 1999). 척수손상은 영구적인 장애를 남김으로써 전 생애에 걸쳐 많은 손실을 수반하므로 개인의 삶은 물론 사회 전반에 영향을 미친다(Kang, 2007). 즉 마비나 불구의 상태가 되어 자율적인 활동이 불가능하므로 신체적으로 타인에게 의존하게 되며 이외에도 대소변 관리의 문제, 요로감염, 마비 부위의 통증과 욕

창, 사지의 경직 및 성기능의 문제가 흔히 동반되며, 척수손상으로 인한 장애는 손상 후 남아있는 잔존 기능에 따라 개인차가 크게 된다. 대개 손상 정도에 따라 다양한 장애와 합병증을 가지고 일생을 살아가게 된다(Jensen, Kuehn, Amtmann, & Cardenas, 2007). 그러므로 척수손상은 신체장애뿐만 아니라 사고와 감정, 가정과 사회에서의 역할, 만족 추구방식 등 생활 전반에서 갑작스럽고 급격한 변화를 초래하는 사건으로 신체기능을 상실했다는 의미를 넘어서 심리적 평형과 생존까지 위협할 수 있는 삶의 위기상황으로 이해할 수 있고(Song, 2005), 우리나라의 경우 과거에 비해 척수손상인에 대한 사회적 태도나 배려가 향상되었다고 하지만, 이러한 변화는 아직도 외형적인 것으로 여전히 부정적인 경향을 유지하고 있다(Lee, 2005).

그간 척수손상과 관련된 연구를 살펴보면, 사회적 지지, 삶의 질(Kim, 2000; Shin & Kim, 2001), 성적 적응(Kang et al., 2000), 부부관계 증진(Yoo, 1998) 등의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이러한 연구들이 척수손상인을 위한 간호 중재 개발에 기여하였지만 이들의 내면적인 총체적 삶을 이해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이들 척수손상인이 일정한 기간이 지나도록 신체상을 재조직하는데 실패한다면 심리-사회적 적응에 많은 어려움을 겪게 된다. 이러한 과정에서 자신의 신체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단계에 이르러서야 성공적인 대인관계와 사회생활이 가능해지며, 척수손상 후의 심리사회적 요인들과 적응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키는 것이 매우 시급하다(Buckelew, Baumstark, Frank, & Hewett, 1990). 이러한 신체에 대한 수용은 장애 후 적응 전반에 영향을 미치게 된다. 대부분 척수손상인은 척수

주요어 : 척수손상, 적응

1) 아주대학교병원 수간호사(교신저자 E-mail: s4916@hanmir.com)

투고일: 2009년 10월 1일 심사완료일: 2009년 12월 9일

손상 초기의 심한 심리적 손상으로부터 적응 단계가 발전해 감에 따라 정상적인 자아상을 확장하므로(Choi, 2002) 결국 적응은 그 특성상 단일 시점에서 파악할 수 없는 개념이다(Kim, 2000).

그러므로 척수손상인의 적응은 인생에 있어서 위기라고 할 수 있는 척수손상 상황에서 개인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환경에 따라서 각기 다른 방식으로 반응하고 대처하게 되어 그의 적응과정에 따른 고찰이 필요하다. 또한 척수손상인을 현재를 살아가는데 초점을 맞추는 연구가 필요하며, 총체적 특성에 초점을 두고 보다 풍부하고 심층적인 본질적 의미의 탐색이 필요하다고 본다. 더군다나 여성 척수손상인의 경우 남성과 다른 다양한 상실을 경험하게 되는데, 개인뿐만 아니라 부부 생활, 자녀와 시댁과의 관계 및 사회생활에 많은 변화를 겪으면서 삶의 총체적인 위기를 맞게 된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여성 척수손상인의 척수손상 후 적응 과정에서 그 경험을 발견하고 기술함으로써 그 의미와 과정에 초점을 두는 상징적인 상호작용을 기반으로 하여 인간의 변화와 과정, 의미, 행위의 상호관계를 중시하는 근거이론 방법(Strauss & Corbin, 1998)으로 접근함으로써 실제 자료에서 근거된 기초적 자료를 제공하며 여성 척수손상인의 적응 과정 경험의 이론 구축에 도움이 되고자 한다.

연구 목적

본 연구는 여성 척수손상인의 내면세계를 살펴보고 그들만이 지니는 독특한 경험체계를 심층적으로 이해하여 그들의 내면세계와 경험 속에 나타난 적응 과정을 탐색하여 실체이론을 도출하고자 시도되었으며, 연구의 문제는 ‘여성 척수손상인의 경험은 어떠한가?’이다.

연구 방법

연구 설계

본 연구는 재활치료를 받은 후 퇴원하여 지역사회에서 생활하고 있는 여성 척수손상인의 적응 과정을 심층적으로 이해하고 이에 대한 실체이론을 제시하고자 Strauss와 Corbin(1998)의 근거이론 방법을 사용하였다.

자료 수집

본 연구의 대상은 현재 경기도에서 거주하는 여자 척수손상인 6명으로 연구 참여를 동의하는 자들로 이루어졌다. 자료 수집 기간은 2009년 6월부터 2009년 11월까지였으며, 각각의

면접시간은 약 60분에서 90분 정도 소요되었고, 평균 2회-3회 면담을 실시하였다.

연구 참여자

본 연구에서는 지역사회에서 생활하는 여성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연구자가 A대학병원의 윤리위원회(IRB)에 서면으로 작성된 연구 계획서를 제출하여 승인(AJIRB-CRO-08-241)을 받았다. 심리적으로 장애를 극복하는 기간을 고려할 때 장애를 입은 후 2년 이상이 경과한 척수손상인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의사소통이 가능한 대상자에게 연구 목적을 설명하고 자신의 경험을 충분히 표현할 수 있는 사람들 중 연구에 동의한 6명을 선정하여 서면동의서를 작성한 후 면담하였다.

자료 분석 방법

연구가 척수손상 후 생활을 하면서 얻는 적응 경험을 개념화하기 위해서는 Strauss와 Corbin(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 방법의 절차를 이용하였다. 면담 시 연구 참여자가 자유로이 이야기할 수 있도록 개방형 질문을 사용하였다. 면담 시에는 참여자의 행동, 표정이나 어조 등을 주의 깊게 관찰하여 면담 내용에 포함하였으며 면담 후에 현장기록 노트에 참여자의 비언어적 표현과 특징과 면담의 주요 내용과 연구자에게 떠오르는 생각이나 질문사항 등을 기록하였다. 연구 참여자의 동의를 얻어 면담 내용은 모두 녹음하였으며 면담 즉시 녹음 내용을 여러 번 반복하여 들으면서 참여자가 표현한 언어 그대로 필사하였다. 먼저 필사된 내용을 녹음된 내용을 반복하여 들으면서 원 자료의 내용과 비교하였으며 불명확한 부분은 직접 만나거나 혹은 전화를 이용하여 참여자에게 확인하고 현장노트를 참고하면서 면담 내용의 정확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윤리적인 고려

면담 시 연구 목적과 연구 방법, 면담 내용의 녹음 등을 설명하여 동의를 얻고 문서화된 연구 참여 동의서에 서명을 받았다. 또한 면담 내용은 연구 목적으로만 사용할 것이며, 개인의 사적인 상황은 비밀로 유지하되 익명성을 보장한다는 점과 참여자가 원하면 언제든지 이 면담을 마칠 수 있음을 알려주어 참여자의 권리를 보호하고자 노력하였다. 면담은 연구 참여자가 원하는 불링장이나 탁구장, 장애인 복지관, 자택에서 이루어졌는데, 면담 도중 힘들어할 경우는 면담을 종료하고 쉬도록 했으며, 소변을 배설해야 할 경우는 화장실에 갈

이 가서 신속히 가도록 했으며, 통증을 호소할 경우 비상약으로 가지고 다니는 진통제를 먹도록 하였다.

연구의 신뢰도와 타당도

일관성(consistency)은 양적 연구의 신뢰도를 의미하는 것으로 연구결과가 반복되는 정도이다. 그러나 질적 연구의 경우는 동일한 내용의 반복보다는 오히려 경험의 다양성이 추구된다고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자료 분석 과정에서 연구결과가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노력하였다.

사실적 가치(truth value)는 연구의 참여자들이 처한 맥락 안에서 얼마나 믿을만한 사실을 발견하였는가이며 양적 연구의 내적 타당도에 해당하며, 이는 현상을 얼마나 생생하고 충실하게 서술하였고 해석하였는가를 의미한다. 본 연구에서는 척수손상인의 풍부하고 다양한 경험을 추출하기 위하여 여러 척수손상인들을 만날 수 있는 지역사회를 자료수집 장소로 선정하였고, 보다 사실적인 분석 결과를 얻기 위해 1명의 연구 참여자에게 보여 그 의미를 확인하는 절차를 가졌다.

연구 결과

본 연구의 참여자는 총 6명이었고, 이중 30대가 2명, 40대가 3명, 50대가 1명이었고, 학력은 대졸이 1명, 고졸이 5명이었다. 결혼 상태를 살펴보면 3명이 부부형태를 이루고 있었고, 3명이 이혼 상태였고, 직업은 1명만 가지고 있었다. 손상 원인은 교통사고가 4명, 산업재해가 1명, 낙상이 1명이었고, 마비 상태로는 하반신 마비가 4명이고, 전신 마비가 2명이었다. 손상 경과 기간으로는 5년 이하가 1명, 6년에서 10년 이하가 3명, 11년 이상이 2명이었다.

개방코딩

개방코딩 과정에서는 자료의 개념화 및 범주화와 범주의 속성 및 차원을 규명했으며, 47개의 개념과 21개의 하위범주가 도출되었다.

축코딩

- 패러다임에 의한 범주분석

축코딩은 개방코딩동안 분해되었던 자료를 재조합하는 과정으로, 현상에 대하여 보다 정확한 설명을 해내기 위하여 범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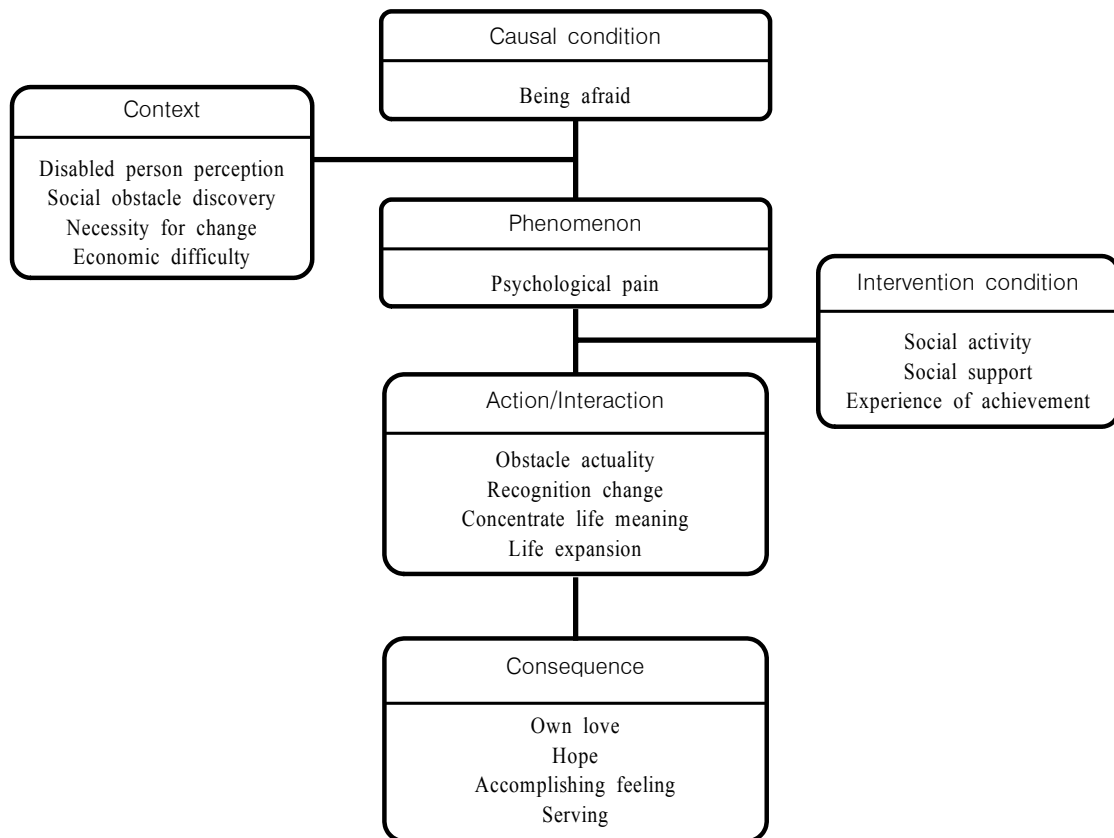


Figure 1. Paradigm model

의 속성과 차원을 계속 발달시키고 범주를 속성과 차원에 따라 하위범주로 연결시키며, 패러다임을 이용하여 범주들이 서로 교차되고 연결되는가를 보여준다(Strauss & Corbin, 1998). 이에 패러다임을 이루는 요소들은 인과적 조건, 중심 현상, 맥락 조건, 중재 현상,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이다. 이러한 요소들 간의 관련성은 Figure 1과 같다.

• 인과적 조건(Causal condition)

인과적 조건은 어떤 현상이 발생하거나 발전하도록 이끄는 사건이나 일들을 말하며 본 연구에서는 갑작스런 사고에 의한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대한 두려움’이 중심 현상의 원인이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으로 살아가는데 대한 두려움

범주: 장애 발생, 장애 인지

사고가 난 후 정신을 차리니 견지 못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주위의 모든 사실을 부정하게 되었고, 신체적 장애는 개인의 활동할 수 있는 능력을 제한시켰으며, 누군가에게 의존을 할 수 밖에 없는 상황이 되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는데 있어 두려움으로 삶을 부정하게 된다.

“예전에 사고가 났을 당시에는 앞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참으로 두려웠어요 제가 못 걷는다는 생각은 하지 못했고 단지 제 몸에 문제가 많기 때문에 매일같이 검사를 한다고만 생각을 했지요 그렇게 해서 2년 반을 병원에서 보내면서 그 당시 퇴원할 일이 너무나 겁이 나더라고요 밤에 자지를 못했어요 살아간다는 그 자체가 두려웠어요”(참여자3)

• 중심 현상(Phenomenon)

중심 현상은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의해 다루어지고 조절되는 것으로 본 연구에서는 ‘심리적 고통’으로 나타났다.

- 심리적 고통

범주: 사회생활 대처 능력 부족, 어쩔 수 없음, 가족에 대한 미안함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여러가지 심리적 문제를 유출하게 되어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음을 인지하면서 내적 정서 갈등이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면서 나타나는 경험이다.

“그 당시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도 몰랐고 무엇보다 해야 할지도 몰랐지요 어쩌다 밖에 나가면 다들 저만 쳐다본다고 생각을 했으니까요 휠체어 타고 다니기 어렵고 창피하기도 했고 그래서 그 후로는 오랫동안 집에만 있었지요”(참여자 6)

• 맥락 조건(Context)

맥락 조건은 중심 현상을 변화시키거나 약화시키는 조건들로 왜 이 현상들이 지속되는가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인에 대한 현실 인지’, ‘사회적 난관 발견’, ‘변화 필요성 인식’, ‘경제적 어려움’이 ‘심리적 고통’이라는 중심 현상에 영향을 미치는 맥락 조건으로 나타났다.

- 장애인에 대한 현실 인지

범주: 불투명한 미래 고민

연구 참여자들은 사고 후 사회적 편견에 따른 장애인 차별을 겪게 되고 또한 장애인을 위한 시설 부족과 불편함 때문에 속상해하며, 더욱 장애인임을 현실적으로 인지하게 되면서 불투명한 미래의 삶에 대해 더욱 고민스러워하게 된다.

“언제부터인가 제가 장애인이라는 사실을 싫지만 조금씩 받아들이기 시작했지요 어쩔 수 없어요 앞으로 사람들을 어떻게 쳐다보나, 어떻게 살아가야 하나.. 죽고만 싶었어요 죽으면 모든 것이 다 해결될 줄 알았거든요 사는 것이 점점 힘들어지고 병원비도 많이 들어가고..”(참여자 6)

- 사회적 난관 발견

범주: 거주 여건 불편함, 취업에 대한 편견

연구 참여자들이 사회생활을 시작하게 되면서 거주 여건의 불편함과 척수손상인으로서 취업에 대한 편견과 사회의 시설 설비의 불편함 등을 느끼게 된다.

“병원에서 퇴원할 당시 집 주위가 너무 불편해서 아파트로 이사를 했더니 좋더라고요 그러나 아직도 여기저기 다니기가 불편한 곳이 많아요 앞으로 장애인들이 제대로 살아가게 하려면 많은 것들이 조금씩 바뀌어야 해요 너무나 불편한 곳이 생각보다 많아 어디 나가기를 두려워했었지요 지금은 처음 다쳤을 때보다 많이 좋아졌어요”(참여자 2)

- 변화 필요성 인식

범주: 장애인으로서 새로운 경험

참여자들은 사고 후 혼자 지내는 시간이 많음으로 인해 상실감을 크게 느끼고 있다가 동료 척수손상인과의 만남을 통해서 척수손상인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새로운 경험을 얻어야 하는 필요성을 느끼게 됨으로써 동료애를 느끼고 지지체계를 구축하게 되고, 그들을 통해 다양한 장애 정보도 습득하게 된다.

“어떤 장애인의 소개로 장애인 복지관을 다니면서 많은 것을 느끼고 생각하게 됐어요 너무 가족에게만 메이지 말고 가족들이 저에게 관심을 가져주지 않는다고 섭섭해 할 필요도 없고.. 나를 위해 재미있게 살아야겠다고 저에게 있어서는 아주 큰 발전이지요”(참여자2)

- 경제적 어려움

범주: 경제적 부담

참여자들의 삶 속에서 언급된 개념으로서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 궁핍은 생활로 이어져 보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낳았다.

“저는 산재라서 그나마 급여가 꼬박 꼬박 나오지만 그렇지 못한 장애인도 많이 있어요 사고 보상금도 받지 못한 그분들은 먹고 사는 것 그 자체를 무척 힘들어하시요..”(참여자3)

• 중재 현상(Intervention condition)

중재 현상은 어떤 현상에 속하는 보다 광범위한 구조적 상황으로 특정한 맥락 조건에서 취해진 작용/상호작용 전략을 조장하거나 강요하도록 작용하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사회적 활동이 버팀목이 됨’, ‘사회적 지원’, ‘성취 경험’이 연구 참여자들의 작용/상호작용 전략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 사회적 활동이 버팀목이 됨

범주: 회원들의 관심을 받음

늘 혼자라고 생각을 하다가 척수손상인 자조모임을 통해서 관계를 맺으면서 회원들의 관심도 받게 되어 기쁨과 자신감을 얻게 되어 사회적 활동이 기반이 되어 자신의 상황과 환경을 바라보는 관점에 영향을 주게 되고, 힘든 환경을 헤쳐 나가면서 인간관계에 주도적으로 참여를 하게 된다.

“장애인 모임을 통해 사회생활에 대한 자신감을 갖게 됐지요 처음에는 누군가와 어울려야 한다는 것이 고통스러웠지요 하지만 이제는 이 모임이 저에게 큰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어요 힘이 나요 그리고 할 일이 있다는 것이 너무 좋고요 그리고 운동을 나오지 않으면 회원들이 나를 기다려주고 전화 연락도 주고.. 이 모임이 큰 힘이 돼요”(참여자2)

- 사회적 지원

범주: 늘 운동이 가능함

참여자들이 삶을 적응해 나가는 과정에 있어 주위로부터 많은 도움을 받고 있음을 알게 되고, 장애인에 사회적 배려로 느껴지는 것으로서 시설적인 면에서 탁구장이 장애인만을 위해 존재하는 것에 대해 감사함을 느끼게 되고, 이 장소에서 늘 만남이 이루어지게 되어 동료애를 증진시키는 장소로 발전하게 된다.

“여기에 오면 늘 운동을 할 수가 있어 좋아요 다른 사람들을 생각하지 않아도 되고요 아주 편해요 바닥에 떨어진 탁구공도 이곳에는 휠체어에 앉아 공을 집어서 올릴 수 있는 도구도 있어 좋지요 여러 가지로 편리해요 운동을 할 수 있는 장소가 있다는 것이 행복하지요”(참여자3)

- 성취 경험

범주: 자신감이 생김

참여자들은 어려움을 경험하면서 어려움에 처한 다른 사람들을 이해하게 되고 그들을 돕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고 부족하지만 늘 최선을 다하며, 또한 시간적 여유와 경제적 안정은 자신감이 생기게 한다.

“대소변 처리도 이제는 혼자할 수 있어요 전에는 할 엄두도 내질 않았지요 전 늘 누군가의 도움을 필요로 했지요 2-3년 전까지도 상상할 수 없는 일이었지요 스스로 할 수 있다는 것이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참여자6)

• 작용/상호작용 전략(Action/Intervention)

작용/상호작용 전략은 문제를 풀기 위해서 취해지는 의도적이고 고의적인 전략으로 참여자들이 마주치게 되는 상황과 문제와 쟁점을 다루어 현상을 만들어 가는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장애 현실에 돌파구 찾기’, ‘장애에 대한 인식 바꾸기’, ‘의미있는 삶에 집중하기’, ‘삶의 영역 확장하기’가 참여자들이 사용하는 작용/상호작용 전략으로 나타났다.

- 장애 현실에 돌파구 찾기

범주: 여러 탐색활동 가능함

자신에게 당면한 상황을 인식하고 극복하는 방법으로 상황에 대해 능동적 대처함으로써 또한 새로운 가능성을 위한 여러 활동을 탐색하게 되고 받은 사랑을 다른 동료 장애인에게 전달하고자 노력하게 된다.

“전에는 휠체어로 마라톤 경기에도 나갔지요 상을 타기도 했지요 하지만 운동을 계속 할 수가 없었어요 집이 어려워 제 몸에 맞는 휠체어를 살 수가 없어 남의 휠체어를 얻어 타고 연습을 하다 보니 기록도 좋아지지 않고 제 허리도 틀어지더라고요 그 후에 이것저것 많이 해보았지요 하지만 얼마 전에 낳은 아기가 걷게 되면 할 수 있는 일을 찾으려고 해요”(참여자5)

- 장애에 대한 인식 바꾸기

범주: 이겨냄

연구 참여자들은 장애를 새로운 삶으로 여기게 되는 계기와 인정하면서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게 되었다. 괴롭지만 자연스럽게 장애를 이겨내고자 하는 의지도 생성되게 된다.

“이제는 저 스스로도 장애를 받아들였어요 어쩔 수 없잖아요 생각을 바꾸니 어느 정도 적응하는 것이 어렵지 않더라고요”(참여자4)

- 의미있는 삶에 집중하기

범주: 포용력이 커짐

참여자들은 생활하면서 생기는 문제점을 하나씩 해결해 가면서 성취감도 느끼고 미래의 계획도 만들면서 남에 대한 배려와 포용력이 커지게 되고 스스로 노력하게 된다.

“우선은 제 자신에게 전념하고 싶고 행복해지고 싶어요 그래서 여기서 열심히 운동을 하고 집에 가면 일단 씻고 잔답니다. 그러면 잡념이 생기지 않아 너무 좋아요 마음도 편 안해지고요..”(참여자2)

- 삶의 영역 확장하기

범주: 적극적으로 뒸

참여자들은 시간이 지남에 따라 장애를 받아들이게 되고 본인에게 주어진 삶에 대해 적극적으로 변화되어 가고 자신의 현실을 받아들이고 수용하게 되면서 또 다른 삶의 모습으로 확장하여 간다.

“요사이는 뭐든지 열심히 하고 도전을 해보려고 해요 도전하는 것이 삶에 희망이 생기게 하지요 우선은 탁구를 열심히 해서 제 능력을 확인하고 싶어요 요새 전문코치에게 훈련을 받고 있어요 이제 곧 대회에 출전을 할 거예요”(참여자2)

• 결과(Consequence)

결과는 중심 현상이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정도에 따라 의도적이거나 자연적으로 발생한다. 본 연구에서 중심 현상인 ‘심리적 고통’에 대한 다양한 작용/상호작용 전략의 결과인 ‘자기 사랑에 성취’, ‘희망’, ‘성취감’, ‘봉사하기’로 나타났다.

- 자기 사랑에 성취

범주: 도약을 위한 준비

참여자들은 이 모든 과정을 경험하면서 결국은 자신이 자기를 사랑하지 않으면 장애인으로서 살아가기 힘들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다.

“저는 몇 번이나 죽으려고 동맥도 끊어보고 병원에도 실려 갔지만 그리고 그 이후로 가족들과 헤어지기도 했지만 모든 생활이 저를 변하게 했어요 조금씩 스스로 하게 되고 노력을 하면서 운동도 배우게 되고.. 하나씩 하다보니 결국은 이 모든 것이 나를 찾아가면서 나를 버리지 않고 사랑하게 되는 과정이더라고요”(참여자6)

- 희망

범주: 안정적 위치 확보

참여자들은 자신을 인정하고 건강한 자아로 거듭나게 되며, 가정에서나 자조 모임에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게 되고 새로운 모습으로 변화되고 주위 환경에서 안정적 위치를 확보하게 된다.

“전 주위의 장애인에게 희망을 가지라고 이야기를 하지요 그래야 우린 살아갈 수 있어요 꿈이 없으면 하루의 삶이 고 달플 수 밖에 없어요 저의 꿈은 탁구단을 만들어 같이 운동을 하면서 행복감을 느끼면서 살아가는 것이예요 그러면 장애인의 역할도 커질 수 있을 것같고.. 어쨌든 이 일을 꼭 하고 싶어요”(참여자3)

- 성취감

범주: 장애인 삶의 의미가 생김

장애를 적응하는 과정에서 자신의 삶이 의미를 깨닫게 되며, 현재의 자신의 삶에 행복해하며 장애 후에 얻은 것이 많다고 생각하기도 한다.

“전 그동안 해놓은 것은 없고 매번 죽으려고 하다가 몇 번 썩이나 병원 응급실에 실려 갔지만 아기가 생기면서 살아가는 의미가 생겼지요 그렇게 나에게 무섭게 대한 새어머니도 변했지요 저에게서 가족은 아주 특별해요 이 아이도 잘 키우고 싶어요 아주 잘..”(참여자3)

- 봉사하기

범주: 다른 장애인을 배려함

참여자들은 차차 타인의 어려움을 알게 되고, 주위를 돌아보게 되고, 받은 사랑만큼 주고자 하는 마음을 가지게 되며 자연스럽게 봉사의 삶을 살려는 마음을 갖게 된다.

“이제 대소변 처리도 혼자할 수 있고 차도 몰고 다니니까 다른 사람들의 생활이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같이 잘 살고 싶어요 전 국가의 보조는 없지만 장애인 자립을 위해 사무실을 열었어요 장애인들이 전화도 제대로 받을 줄 알고 물건의 값도 제대로 치를 줄 알게 되고.. 그렇게 배우게 되던 장애인들이 취직을 해서 돈도 벌고.. 같이 더불어 잘 살 수 있잖아요”(참여자6)

● 과정 분석

과정분석은 과정과 구조의 상호작용으로 시간이 지나면서 현상에 대한 반응, 대처, 조절에 관계하는 작용/상호작용의 연속적인 연결을 의미하고, 중심 현상의 생성에서 전환에 이르는 전 과정을 시간의 흐름을 따라 관찰하는 보조적 분석도구이다. 본 연구에서는 각 참여자들마다 드러난 작용/상호작용 전략이 시간의 흐름에 따른 적응과정은 부정 단계, 깨달음 단계, 다가감 단계, 받아들임 단계의 4단계로 전개되어가는 과정으로 분석하였다(Figure 2).

• 부정 단계

사고로 갑자기 자신이 장애상태에 처해진 것에 놀라며, 실제로 신체 기능 장애를 가진 여성으로서 역할 상실감과 좌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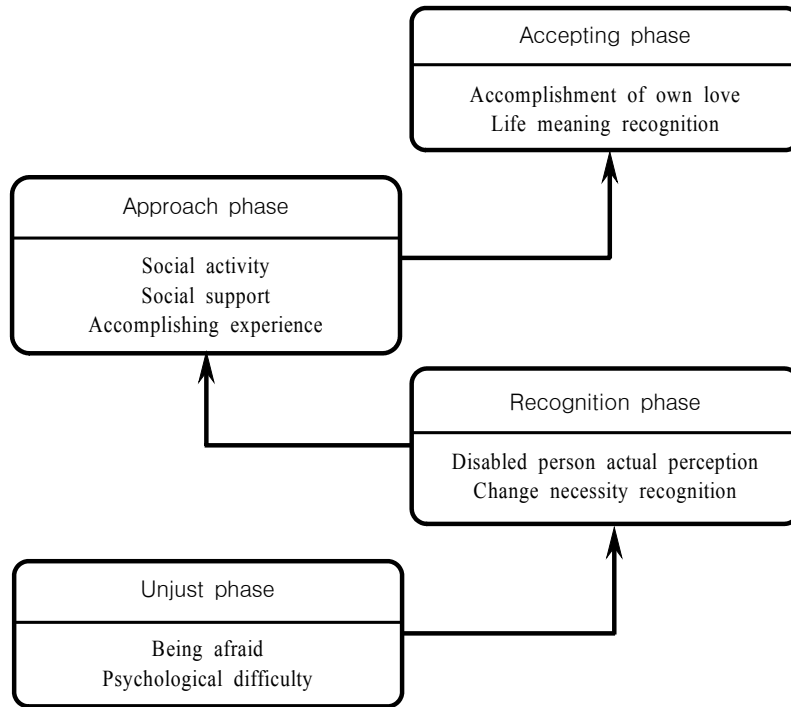


Figure 2. Process analysis

감에 주위의 모든 것을 ‘두려움’으로 삶을 접하게 되며, 현실에 대한 인식부족으로 미래의 상황을 예측하지 못하는 상태에 있게 된다. 자신이 아내로서, 어머니로서 아무 역할을 할 수 없다는 생각을 하면서 자기연민에 자신을 버릴 생각을 조금씩 하게 된다. 연구 참여자 대부분은 두려움으로 괴로워하면서 자살이 최선이라고 생각하고, 시도해 보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다시 삶을 이어가게 된다.

• 깨달음 단계

앞으로 살아갈 일에 대해 더욱 고통을 느끼고 남편이 곧 떠날지도 모른다는 생각을 하며, 이것은 현실로 나타나 결국 이혼을 하기도 한다. 자식과 남편을 떠나보내거나, 남편과 자녀에 대한 집착을 하지 않기로 다짐한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괴로워서 이 순간을 살아가기를 힘들어하며 조금씩 삶의 짐을 하나씩 놓으려는 시도를 하기도 한다. 이러한 태도는 바로 가족이 아닌 다른 환경에 눈을 돌리는 계기가 된다. 다른 장애인과의 모임에도 참석하게 되고, 이 모임에서의 활동이 조금씩 편하게 느껴지게 되어 척수손상인으로서 삶을 살아가는 방법을 서서히 깨닫게 된다.

• 다가가감 단계

동료 척수손상인들이 활기차게 사는 모습을 보면서 ‘나도..’라는 생각을 하게 된다. 모임에서 대화를 통해서 또한 함께하는 운동을 통하여 장애를 자연스럽게 받아들이게 되고, 기동

력을 얻기 위해 운전도 배우게 된다. 이때쯤 나오게 된 보상금과 산재급여 등을 여성 척수손상인의 명의로 관리를 하면서 척수손상인으로서 삶의 지혜를 터득하게 된다. 이제는 더 이상 가족에게 메이지 않고 자신의 감정에 자유로움을 주게 되고 주위의 환경에도 관심을 갖게 된다. 그러면서 부부관계에서 아기도 낳기도 하지만 일단 성의 관한 문제는 접어두게 되고 장애와 함께 살아가는 법을 터득하게 된다.

• 받아들임 단계

변화된 삶을 통합해가는 단계로서 참여자들은 현재의 생활을 독립적으로 살기로 하면서 장애 현실에서 실마리를 찾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며, 의미있는 삶에 집중하면서 삶의 영역을 확장해 가는 ‘받아들임’의 단계로 돌입하게 되어 안정감을 찾게 된다. 참여자들은 자신의 통제력도 증가되고, 자유로움도 경험하게 되고, 자신의 현재 상태를 넘어 미래 목표를 설정함으로써 자신이 가지고 있는 잠재력을 실현시키고자 한다. 즉 자신을 사랑하고, 희망을 가지며, 성취감도 얻고, 봉사를 위해 행동으로 옮기기도 하면서 삶을 이제는 긍정적으로 받아들이면서 적극적으로 살아가게 된다.

결국 갑작스러운 사고로 척수손상인으로서 살아가는 데에 대한 심리적 고통으로 살면서 힘들게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게 되고 사회적 활동이 삶에 버팀목이 되면서 성취 경험을 얻게 되고 장애 현실에 돌파구를 찾고 인식을 바꾸며 동료 장애인의 자조 모임과 운동 모임을 통하여 의미있는 삶에 집

중하면서 삶의 영역을 확장해 나가는 과정으로서 장애에 대한 ‘부정’을 주위 환경과 부딪치면서 ‘깨달음’으로 발전하게 되고 이로 인해 여성 척수손상인 스스로가 가족과 사회에 ‘다가감’으로써 조금씩 자신감을 회복하고 장애와 사회를 ‘받아들임’을 통해 ‘자기 사랑 성취하기’의 과정임을 발견하였다.

선택코딩

● 이야기의 윤곽 단계

사고가 남의 일인 줄로 알다가 어느 날 갑자기 찾아온 사건은 절망 그 자체였다. 그러나 재활치료를 받고 퇴원을 한 후 사회생활에 접하게 되면서 어쩔 수 없이 살아가면서 절망스러워 죽으려 한다. 하지만 자살도 쉽게 이루어지지 않으면서 도리어 가족과 헤어지는 고통을 갖게 된다. 어떤 참여자는 절망 끝에 있던 중 아기 탄생의 기쁨을 얻게 되어 다시금 삶의 의욕을 느끼게 된다. 우연히 척수손상인 자조모임과 운동모임을 통하여 동료애도 느끼고 자연스럽게 장애를 조금씩 받아들이게 된다. 이러한 경험의 과정을 통하여 앞으로 행복해지고 싶다는 생각을 하면서 운동선수로서 전국대회에도 출전하게 되고, 이러한 적응 과정을 통해 자기에 대한 사랑을 성취하게 되며, 다른 척수손상인을 도울 수 있는 운동모임을 만들어 보겠다는 포부도 가지게 되고, 자비로 사무실을 열어 장애인을 돕는 봉사도 하고 있다.

● 핵심범주: ‘자기에 대한 사랑 성취하기’

핵심범주는 자료에 자주 보이고 있는 자료의 변동을 잘 설명할 수 있으며 다른 범주와 쉽게 연결되고 이론을 함축하고 단계적으로 이어질 수 있어야하며 분석에 있어서 최대한의 변동을 허용하는 것이어야 한다. 이에 자료를 통해 범주를 축소해가고 문헌을 고찰하고 자료를 선택적으로 추출하였다. 이에 척수손상을 부정 단계, 깨달음 단계, 다가감 단계, 받아들임 단계의 전체 과정을 통해 ‘자기에 대한 사랑 성취하기’를 하게 되고 자기조정을 시도하고 자기관리를 강화하는데 영향을 끼쳤다. 이렇듯 여성 척수손상인 적응 경험의 과정은 ‘자기에 대한 사랑 성취하기’로 완치가 어려운 척수손상의 특성을 인식하고 척수손상 발생 이전의 상태와는 분명히 다른 새로운 삶의 궤도를 찾아가는 과정이라고 할 수 있다.

● 상황/결과 모형

상황/결과 모형(conditional/consequential matrix)은 연구결과로 나온 구조와 과정을 통합하는 분석틀이다. 다양한 종류의 상황들과 작용/상호작용 전략, 결과들이 어떻게 관계를 맺고 있으며, 이 구조는 과정과 어떤 관계가 있는지를 설명하는 것으로서 모든 범주들을 통합하는 마지막 단계라고 할 수 있다.

상황 결과 모형에서는 개인, 대인, 지역사회 등 다양한 수준에서 이를 파악하였다.

• 개인 수준

여성으로서 척수손상을 가지고 경험하게 되는 두려움은 앞으로 어떻게 살아갈 것인가를 결정하게 된다. 신체적 기능 장애를 겪으면서 경제, 가정생활의 문제 등에서 어려움을 경험하게 되며, 내적 적응과정으로서 아주 절실한 심리적 고통 등을 경험하게 된다. 자신이 평생 걷지 못한다는 사실에 충격을 받고 죽고 싶어 하며, 누군가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상황에서 혼자만 있는 상황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게 된다. 또한 이들은 스스로 누군가의 도움을 받아야 일상생활을 할 수 있음에 대해, 또한 본인만 없어도 다른 식구들이 편해질 것이라는 생각에 자살을 감행하기도 한다.

• 대인 수준

시간이 지나감에 따라 척수손상이 나아질 수 있다는 기대감을 갖기도 하고 비장애인들의 사회적 편견에 대해 속상해한다. 하지만 척수손상인의 자조모임과 운동모임을 통해 장애 현실에 정면으로 부딪칠 수 있는 용기도 생기고, 삶의 변화를 시도해 보기도 한다. 또한 동료 척수손상인과의 지지와 정보교환으로 인해 나름대로 방안을 찾게 된다.

• 지역사회 수준

점점 사회생활을 통해 장애 현실을 수용하면서 해결점을 찾으려고 장애에 대한 인식을 바꾸고 의미있는 삶에 집중하면서 삶의 영역을 확장하기 위해 노력하게 된다. 또한 경제적 어려움의 대한 대책도 스스로 찾아보고 해결해 보려한다. 불편한 사회 환경과 시설에 대해 속상해 하지만 여성적인 부드러움으로 상황을 받아들이면서 다른 동료 장애인과 개선도 꾀하면서 삶에 대해 적응해 간다.

논 의

사고 후 척수손상인들은 먼저 활동력 저하, 경제력 저하, 성적 역할 수행 능력 상실, 갑작스러운 활동의 제한 등의 척수손상과 관련된 신체적 변화와 사회적, 경제적 환경의 변화를 경험한다(Kang, 2000). 이들이 경험한 삶의 요소들은 서로 밀접하게 영향을 미치고 있어, 결국 전체적인 삶의 모습에 커다란 변화를 초래하기도 한다(Kreuter, Sullivan, & Siösteen, 1996).

본 연구에서는 여성으로서 척수손상 후 적응에 대한 사실적인 경험을 파악하고자 하였다. 면담 결과 생활하면서 나타나는 인과적 상황이 ‘삶에 대한 두려움’으로 나타났고, 갑작스

럽게 찾아온 사고로 생긴 장애를 인지해야하는 것으로 척수 손상이라는 큰 벽이 사회적으로 고립된 삶을 살아가게 하는데 있어 두려움으로 엄습해 오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척수 손상인은 세상의 불공정에 대한 두려움을 갖게 되고 이러한 두려움은 장애의 결과에 대한 두려움으로 이어진다고 보고한 Lee (2005)의 연구와 유사하였다.

여성 척수손상인의 중심현상은 ‘심리적 고통’으로서 이러한 심리적 고통은 자신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으로부터 영향을 받았으며, 자신이 처한 환경의 변화 속에서 여성으로서의 삶에 대한 심리적인 변화를 많이 보였다. 이는 장애를 받아들이기 어려워 여러 가지 심리적 문제를 유출하게 되면서 불가항력적으로 어쩔 수 없음을 인지하면서 사회생활 대처 능력 부족과 가족에게 미안함이 함께 어우러진 것으로서 내적 정서 갈등이 심리적 고통으로 이어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Chen과 Boore (2007)는 척수손상이 환자 자신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제양과 같은 생활사변으로 인식된다고 하였으며, Nettleton (1995)는 장애가 발생되면 자신의 인생행로와 자아개념을 근본적으로 재고하게 되고, 변화된 삶에 직면하여 가용자원을 동원하는 데에 따르는 혼란을 경험하게 하여 본 연구와 맥락이 유사하였다. 또한 척수손상인은 신체적 결함으로 인해 우울감과 같은 심리적 고통을 경험할 수 있는데, 척수손상인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Budh와 Osteraker (2007)의 연구에서는 우울 수준이 높을수록 생활 만족이 저하되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어, 이는 비참함, 답답함, 막막함, 분노 또는 아무 생각이 없다는 무심의 심리 상태를 표현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Buckelew 등(1990)은 척수손상인의 우울감은 자신의 대응 전략 방법에 따라서 심리적 적응을 하며 자책적인 대응 전략을 구사하는 사람이 더욱 심한 우울을 경험한다고 했다. Kang (2000)에 의하면 이러한 심리상태는 개개인마다 경험의 차이가 있었으며 단계적인 양상은 관찰되지 않았고 다소 차이만을 보였다고 하였다.

한편 사회적 문제점으로서 척수손상인이 무능력함과 차별을 겪게 하는 ‘사회적 난관’ 발견과 갑작스러운 사고로 인해 경제적인 어려움을 겪게 되고, 경제적 궁핍은 생활고로 이어져 보다 안정적인 경제생활의 걸림돌이 되는 결과를 낳게 되는 ‘경제적 어려움’이 중심현상을 가중시키는 맥락으로 작용하고 있었다. 이에 ‘사회적 난관’은 척수손상에 대한 사회의 부정적이고 제한적인 태도로 이들의 독립성을 저해할 수 있으며 (Boschen, Tonack, & Gargaro, 2003), 이러한 편견에 민감한 척수손상인들에게 사회적 활동을 저해하는 중요한 이유가 될 수 있다(Boschen et. al., 2003). Beck, Stuijbergen와 Tinkle (1997)에 의하면 장애인을 아직도 인간적 존재로서 인식하기 보다는 그들의 신체적 손상에 관심이 없거나 아니면 국한된 사회적 인식으로만 보고있다고 하였다. 게다가 ‘경제적 어려

움’에 대해서 장애인에 비해 비장애인에 비해 소득수준은 낮은 반면, 장애로 인한 추가비용 지출 때문에 생활이 더 어렵다고 했으며(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 척수손상인의 재정적 빈곤은 심각한 삶의 문제가 되고 있다고 했다(Krause, 1992).

또한 여성 척수손상인의 상호작용 전략으로는 ‘장애 현실에 돌파구를 찾기’위한 사회적 활동을 통해 적극적인 대처가 가능함을 가늠해 볼 때 척수손상 후 적응 과정동안 배우자, 동료의 지지가 중요함을 알 수 있었다. 그 중에서도 동료 척수손상인이 가장 큰 지지체계를 볼 때 많은 접촉 기회를 갖도록 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할 수 있겠다. Stensman (1994)은 척수손상인의 일반적인 삶의 적응 과정에 영향을 주는 요소로 배우자의 지지를 꼽았고, 부부관계 유지를 위해서는 배우자의 장애에 대한 이해의 중요성을 이야기 하였고, 이혼 또는 별거 사유로는 배우자의 척수손상에 대한 이해 부족으로 인한 갈등이 많았음을 보고하였다. Damrosch (1991)는 자조그룹은 같은 도전과제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정기적으로 만나서 서로 같은 문제를 가지고 있는 구성원들에 대한 공감, 이해, 그리고 사회적 지지를 통해 문제를 해결하려고 시도하고, 개개의 변화 행동을 시도하고 유지하려는 동기를 강화해 줄 수 있다고 하였다. 이와 같이 동료 척수손상인에 의한 지지는 척수손상을 가지고 살면서 겪게 되는 개인 문제와 사회적 적응 문제 상에서 많은 도움이 되는 것을 알 수 있었다. 본 연구의 결과에서 나타나듯이 척수손상인이 안정을 갖는 시기는 개인마다 차이가 있었으나 대개의 경우 재활전문병원 또는 지역사회에서 타 장애인들과의 만남을 가지면서 부터였다. 그러므로 여성 척수손상인의 적응은 같은 동료 척수손상인의 적절한 지지체계가 있으면 대처 전략에 긍정적인 변화를 가져올 수 있었다.

결론 및 제언

본 연구는 여성 척수손상인의 적응 경험의 근거 자료에 따라 근거이론을 개발하고자 시도된 연구로 6명의 참여자를 심층 면담하였고, Strauss와 Corbin (1998)이 제시한 근거이론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본 연구에서 여성 척수손상인은 중심현상인 ‘심리적 고통’으로 인해 ‘장애 현실에 돌파구 찾기’, ‘장애에 대한 인식 바꾸기’, ‘의미 있는 삶에 집중하기’, ‘삶의 영역 확장하기’의 전략으로 ‘자기에 대한 사랑 성취하기’의 과정으로 파악되었고, 이 과정에는 ‘사회적 활동이 버팀목이 됨’, ‘사회적 지원’, ‘성취 경험’이 중재 상황으로 작용한 것으로 파악되었다.

여성 척수손상인의 적응 과정 경험은 사고에 의해 발생한 척수손상을 가지고 살아가야하는 ‘삶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

고 있다가 변화가 없는 마비 상태로 심리적 고통을 겪으면서, 장애인에 대한 현실 인지와 사회적 난관을 발견하고, 변화 필요성을 인식하고, 경제적 어려움이라는 맥락 속에서 척수손상을 받아들이게 되어 자기를 사랑하며, 희망과 성취감과 봉사하기의 형태로 변화된 삶을 통합해 나가는 것으로 발전하기까지 한다. 여성척수손상인의 적응과정은 척수손상을 받아들이는 과정을 통하여 ‘부정’, ‘깨달음’, ‘다가감’, ‘받아들임’ 단계를 거쳐 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본 연구 결과는 여성 척수손상인이 남성과 다른 여성으로서 차이점을 인정하고 손상 후의 삶의 형태에 적응하여 ‘자기에 대한 사랑 성취하기’를 이룰 수 있는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References

- Beck, H., Stuijbergen, A., & Tinkle, M. (1997). Reproductive health care experiences of women with physical disabilities: A qualitative stud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8*(5), 26-33.
- Boschen, K. A., Tonack, M., & Gargaro, J. (2003). Long-term adjustment and community reintegration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Internal Journal of Rehabilitation Research, 26*(3), 157-164.
- Buckelew, S. P., Baumstark, K. E., Frank, R. G., & Hewett, J. E. (1990). Adjustment following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Psychology, 35*(2), 102-104.
- Budh, C. N., & Osteraker, A. L. (2007). Life satisfaction in individuals with a spinal cord injury and pain. *Clinical Rehabilitation, 21*(1), 89-96.
- Chen, H. Y., & Boore, J. R. (2007). Establishing a super-link system: Spinal cord injury rehabilitation. *Journal of Advanced Nursing, 57*(6), 639-648.
- Choi, W. J. (2002). *A study on the family support, hope and psychosocial adaptation of the spinal cord injury patients*. Unpublished master's thesis, Dong-A University, Busan.
- Damrosch, S. (1991). General strategies for motivating people to change their behavior. *The Nursing Clinics of North America, 26*(4), 833-843.
- Jensen, M. P., Kuehn, C. M., Amtmann, D., & Cardenas, D. D. (2007). Symptom burden in persons with spinal cord injur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88*(5), 638-645.
- Kang, H. S., Koh, J. E., Suh, Y. O., & Yee, O. H. (2000). Sexual adjustment process of individuals with spinal cord injury. *The Korean Journal of Rehabilitation Nursing, 3*(1), 80-97.
- Kang, K. M. (2007). *Incidence change of traumatic spinal cord injury in Busan*.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sin University, Busan.
- Kim, A. L. (2000). *Quality of life model for spinal cord injured persons*.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Ewha Womans University, Seoul.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6). National survey on persons with disabilities, 2005,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ublications.
- Korea Institute for Health and Social Affairs. (2007). Low income disabled person selection standard research, Seoul, Ministry for Health Welfare and Family Affairs Publications.
- Krause J. S. (1992). Longitudinal change in adjustment after spinal cord injury: A 15-year stud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3*(6), 558-563.
- Kreuter, M., Sullivan, M., & Siösteen, A. (1996). Sexual adjustment and quality of relationships in spinal paraplegia: A controlled study. *Archives of Physical Medicine and Rehabilitation, 77*(6), 541-548.
- Lee, D. H. (2005). *Study on the perception of disability by Q method*. Unpublished master's thesis, KongJu National University, GongJu.
- Nettleton, S. (1995). *The sociology of health and illness*. Oxford: Polity Press.
- Park, C.I., Shin, J. C., Kim, S. W., Jang, S. H., Chung, W. T., & Kim, H. J. (1999). Epidemiologic study of spinal cord injury. *Korean Academy of Rehabilitation Medicine, 23*(2), 267-275.
- Shin, S. R., & Kim, A. L. (2001). Factors effect on quality of life of spinal cord injury patients. *Journal of Korean Academy of Nursing, 31*(1), 126-138.
- Song, J. W. (2005). *A study on sexual adjustment and self-efficacy in people with spinal cord injuries: focused on moderating effects of social support*. Unpublished master's thesis, Yonsei University, Seoul.
- Stensman, R. (1994). A longitudinal study of self-reported quality of life. *Paraplegia, 32*, 416-422.
- Strauss, A., & Corbin, J. (1998). *Basics of qualitative research: Techniques and procedures for developing grounded theory*. New York: Sage Publications.
- Yoo, Y. S. (1998). *Problems of couples with spinal cord injury and the application of the couple-relation-improvement-program*. Unpublished doctoral dissertation, Soongsil University, Seoul.

The Adaptation Process with the Spinal Cord Injured Women Persons

Song, Chung Sook¹⁾

1) HN,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Purpose: This study is aimed at life adaptation process of women with the spinal cord injury. **Method:** The subjects were 6 women in Kyeonggi and they had interview individually. The study was conducted during June to November in 2009 and developed substantial theory in women's life adaptation process by applying ground research methodology. **Result:** Motivation for such a change was their psychological pain, which is the central phenomenon. Social activities sustained them during such a process, while social support and experience of achievement acted as an intervention condition. During the initial period, they had a vague expectation that the condition of their accidental spinal cord injury would be improved. Then the expectation had failed, they experienced psychological pain, finding out the reality about the disabled and social difficulties awaiting them. Since then they began to love themselves, pursuing a changed life of hope, achievement and serving. **Conclusion:** Its result is expected to serve as a basic data for rehabilitation nursing, so that they may conduct independent lives, with a love toward themselves. Repetitive research would be necessary concerning the adaptation process of women in order for the criteria presented to become richer, and for the relations among the criteria to become more refined.

Key words : Spinal cord injury, Adaptation

• Address reprint requests to : Song, Chung Sook

HN, Ajou University Medical Center

San 5, Wonchon-dong, Yeontong-gu, Suwon 443-721, Korea

Tel: 82-31-219-5987 Fax: 82-31-219-4659 E-mail: s4916@hanmir.com